

“관광정책,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국관광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김향자 위원 기조발제...이용근 교수 'K-의료 웰니스 관광' 주목 토론회 등도...박창규 회장 “제시된 아이디어 학술적 보완 추진”

“2024 한국관광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7일 서울관광재단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K-관광 연구,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K-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 석좌연구위원이 '미래 관광 환경에 대비한 한국 관광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 “새로운 관광 정책은 기존의 성장 중심, 대도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속가능성, 지역 균형, 기술 혁신, 다중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 연

구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 연구는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과정 중심의 학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용근 공주대 교수는 'K-의료 웰니스 관광, 어떻게 활성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의료 웰니스와 관광의 융합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술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충기 전 한국관광연구학회장을 좌장으로 전영철 상지대 교수, 김병국 대구대 교수, 류시영 한라대 교수, 송상섭 제주한림공원 대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 세션 외에도 대학생 공모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학생 공모전에서는 '하비스트(Harvest, Hobbyist): 농촌지역의 지속가능 관광'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민수·김도유·장하늘·장하리(동국대학교) 학생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술대회를 주최·주관한 한국관광연구학회의 박창규 회장(전남도립대 교수)은 “한국 관광산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방안을 학술적으로 더욱 보완해 K-관광으로 한국 경제발전을 이끄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연구학회는 1990년에 설립된 한국관광지리학회와 한국관광개발학회가 지난 2002년 3월1일자로 통합돼 발족한 국내 최초의 M&A 학회이다. 현재 3천여명의 회원이 관광지리개발, 로컬관광, 남해안관광, DMO, 외식산업, 스마트관광, 관광이벤트, 의료 웰니스 등 8개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교육부, 정재용 조선대 이사 취임 승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9일 “교육부가 고(故)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정재용(사진) 변호사의 취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선대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9명의 이사 구성을 완료했으며, 정 이사의 임기는 보선으로 인한 잔여임기인 2026년 6월30일까지다.

정 이사는 참여자치2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제4·5대 광주전남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재용 이사는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GS칼텍스, 마음톡톡 콘서트 '성료'

GS칼텍스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7일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전남동부지역 위기 청소년 마음톡톡 뮤지컬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남동부지역 위기 청소년 마음톡톡”은 전남동부권의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아닌 예술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열린 콘서트에서는 울레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0명이 5개 팀을 꾸려 준비한 노래와 악기 연주 실력을 뽐냈다.

김기용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은 “관·산·학 협력을 통해 이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2016년 4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이화여대와 ‘마음톡톡 예술치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조선대-세계김치연구소 ‘치매예방 김치 개발’ 맞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최근 세계김치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소 기술혁신연구본부와 치매 예방 및 노인성 질환 역제를 위한 기능성 김치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뇌염증 및 노인성 신경퇴행 억제 유산균 연구 개발 ▲치매 예방 기능성 김치 개발 및 기술 사업화 ▲기능성 유산균 함유 김치의 효능 실증을 위한 인체 적용 시험

▲공동 연구 개발 분야 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이 다.

김용재 조선대 산학협력단장은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력은 과학적인 연구와 사업화를 통해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치매 예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전남농기원, 中 저장성과 스마트농업 등 협력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저장성 농업과학원(부원장 장원)과 스마트농업, 농기계 기술, 정밀제어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와 저장성은 1988년 자매결연을 맺고 25년 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11년 MOU 체결 이후 농업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지금까지 저장성 측 전남 방문 16회, 전남 측 방문 12회라는 성과를 이어왔다.

이번 저장성 농업과학원의 전남 방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교류로 양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정기자

저장성은 디지털농업과 스마트농업 기술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남농업기술원은 첨단 무인자동화기술과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있어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기계 및 스마트농업 기술 협력, 데이터 기반 정밀제어 기술 공유, 전통약재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행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양국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 정기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산구 월곡2동자원봉사캠프, 초록우산에 물품 기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산구 월곡2동자원봉사캠프에서 화장품 500롤을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월곡2동자원봉사캠프지킴이들이 올해 자원순환 일환으로 분리배출을 통해 모은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기부한 것으로, 초록우산 광주본부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첫 살림 지원 ‘자립키트’ 물품에 포함돼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유영태 초록우산 광주후원회장과 이정자 월곡2동자원봉사캠프장 및 캠프지기 7명이 참석했다.

이정자 월곡2동자원봉사캠프장은 “지구를 위한 자원순환을 실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출



발점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해 준 캠프지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목포해경,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2024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해경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성 목포해경서장, 유인숙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권 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사장 수여, 홍보영상 시청, 정책제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해경 정책자문위원회는 관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목포해경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권오성 서장은 “국민에게 더 나은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서 강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 ‘성과공유회’ 성료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는 “최근 센터에서 개최된 ‘2024 레벨UP+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경화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광주 지역 청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청년 네트워크, 2부 성과공유회로 진행됐다. 1부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캘리포니아

점 검사 ▲퍼스널 컬러 찾기 ▲크리스마스 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2부 성과공유회는 ▲성과 공유 ▲참여 후기 공모전 ▲청년 강사 프로그램 발표 ▲우수동아리 시상식 등 순으로 이어졌다.

김경화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담양군, 17일까지 어르신 삶 담은 ‘미술치료 전시회’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일 “오는 17일까지 담양문화회관에서 ‘우울감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전문 치료사가 함께하는 만다라·협동화 그리기, 심리 상담 등 총 12차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전시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어르신 6명의 창의력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개인화·협동화 6종 31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호반장학재단, 서구 돌봄청년에 장학금

광주 서구는 9일 “호반장학재단,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돌봄청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착착착(착한서구 착한기업 착한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서구청 나눔홀에서 김기강 서구청장과 김세준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 송진오 호반장학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호반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등 서구 돌봄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착한디딤돌 청년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장학금은 돌봄청년 20명을 위한 ‘2025년도 입학 및 새학기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지원이 광주 서구 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반그룹과 호반장학재단은 지역사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25년간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성학기자